

2023 겨울

제225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서로 사랑하여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 발행인 정순택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525호 해외선교봉사국

전화 02)727-2407, 2409, 2424 | 이메일 mission@seoul.catholic.kr | 팩스 02)727-2411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해외 선교 사제

10개 국가 21명



일본

김성천 스테파노 (P.08)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신광수 베드로

김필중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정해성 베드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P.14)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재원 베드로사벨

김경진 베드로



겨울호 특집



해외선교봉사국 | 차장 유동철 신부 (p.04)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일본 김성천 신부 (p.08)



• 미국(알래스카) 이준호 베드로 (P.21)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박형문 바오로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과테말라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P.18)
우석제 도미니코

•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도쿄대교구 주교좌성당에서 구요비 올 주교님과



유동철 리노
해외선교봉사국 차장 신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5일 자로 해외선교봉사국 차장으로 발령받은 유동철 리노 신부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제로 지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있을 적에는 사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호기롭게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사실 저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분이 기도와 후원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고, 주위의 여러 도움이 있었기에 저 역시 선교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고자 희망하면서, 사제품을 받고 본당에서

사목활동을 하면서 또 선교 사제로 살아가며, 저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상황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로는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안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아라.”(요한 1,39)하고 초대하시는 것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온 마음으로, 온 생각을 다하여 공감하고,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상 곳곳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 신부님들 역시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울고 싶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신부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많이 부족한 저 자신이지만, 그래도 선교 신부님들과 신부님들께서 사목하시는 공동체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일 주교 교류 모임 후에 구요비 욥 주교님과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 신부님들은 구요비 욥 주교님과 함께 봉헌하는 미사에서 주교님께 축복의 안수를 청했고, 주교님께서 기꺼이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축복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마음의 위로를 누리며 선교 사제로서 살아가려는 마음과 주님의 부르심에 오로지 응답하며, 순명하는 본인의 삶을 다잡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전후로, 저에게 일본 선교지를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후쿠오카에서부터, 구마모토, 도쿄, 요코하마, 고베, 그리고 오사카에서 선교하시는 신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신자들을 강복하는 구요비 주교님과 일본 선교 사제들

사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처럼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가까이 있어서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다름’ 안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적 차이나 역사적인 문제 안에서 오는 어려움 또한 있겠지만, 특히 종교관에 대한 ‘다름’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우리에게 가톨릭 신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며 나누던 대화 중에, 기사님은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나 있다.’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많은 신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가톨릭이 자리 잡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때에 각자에게 맞는 신을 찾는듯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께서는 일본 신자들이 성탄절 미사나 성야 미사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전에는 천황의 생일(공휴일로 지정)이 12월 24일이어서 그래도 미사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천황도 바뀌어서 사람이 얼마나 올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도 세례는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 달라는 사람들, 혼인이나 장례는 성당에서 하고 싶어 하지만 평소에는 성당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사제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들 안에서 신부님들은 때로는 상처받기



•주님께 안수 받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선교사로서 파견되는 사제들

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걱정과 상처, 어려움들이 분명 신부님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 어려움, 관계 안에서 오는 상처나 아픔들, 이런 여러 어려움 안에는, 또한 반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자들과 나누는 사랑, 기쁨과 행복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머물고 있고, 하느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주님께 힘과 용기를 청하면서 선교 신부님들은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선교 신부님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과 후원, 노력과 정성, 마음을 모아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구원 사업에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저의 자리에서 우리 선교 신부님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 신부님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지원하시는 모든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우·본·소

일본 | 후쿠오카교구



일본 후쿠오카

김성천 스테파노 신부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제 차례가 되어 ‘우리 본당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머무르고 있는 본당에서는 2년 반을 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식을 통해 두 차례 전해드렸던 본당 소식 이외에 새롭게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보좌 신부로 지내고 있는 두 본당인 테토리 성당과 오비아마 성

•오비아마 성당





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두 본당은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다가오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테토리 성당은 현 성전이 1928년에 지어진 곳으로 역사가 느껴지는 본당입니다. 동시에 주위에 백화점과 호텔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아서인지 도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교적상 신자 수는 1,000여 명이고, 사목회 구성이나 단체 활동이 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서울대교구 본당들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 시내 외곽에 있는 오비야마 성당은 주택가에 위치하면서도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잔디밭이 있고, 성당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새들을 종종 볼 수 있어서인지 소박하고 시골스러운 느낌이죠. 교적상 신자 수는 280여명으로 테토리 성당에 비하면 작은 본당입니다. 단체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본당 사정에 맞게 서로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본당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그 시골 본당의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본당 교우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선 소식지에서는 오비야마 성당에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는 대학생과 그 가족을 소개했



• 테토리 성당

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르신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테토리 성당의 우에무라 형제님입니다. 만 나이로 92세인 어르신은 평일 미사에서 시중 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셔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성당에 오셔서 자리에서 앉아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시고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여쭙어보니 어르신은 유아세례를 받으셨고, 복사를 어렸을 때부터 해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복사를 하신 걸까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굽어지셨지만, 천사처럼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이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은 오비야마 성당의 오오모리 자매님입니다. 이분도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성당에 오셔서 평일 미사를 드리시는 어르신인데요, 얼마 전 만 99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생신날 교우분들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최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둘째 따님이 작년 여름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되었지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만, 이후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12월 말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 본인이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모두 걱정하는 마음이 컸는데, 입원하신 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면회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자 영성체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고, 가족 중 막내 따님과 같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재활 보조 기구를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하는 따님이 쉬는 날, 차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평일 미사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서 버스를 타고 미사에 나오십니다. 때로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따님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실 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따님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교우분들과의 서울 방문





*오비야마 성당의 어린이 식당



이밖에 최근 교우분들과의 서울 방문, 주일학교 및 청년 행사, 경로의 날 행사, 바자회 등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짧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9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두 차례 (1차는 주말 중심, 2차는 평일 중심) 교우분들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와 성당 방문, 시내 관광 중심으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행복해하셨던 교우분들과 저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초에는 청년들과 함께 올해 개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정’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올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 대회(WYD)’에 참가했던 청년의 체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에 이곳의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11월에는 두 성당에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테토리 성당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오비야마 성당은 작년에 이어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월 중순, 일본에서 사목하고 계시는 서울대교구 신부님들의 모임이 도쿄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선교 담당 구요비 욥 주교님과 유동철 리노 차장 신부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교님께서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주교회의를 마치고 바로 참석하셨고, 차장 신부님은 서울대교구 신부님들의 사목지를 방문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를 위해 기꺼이 함께해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님들이 계신 자리는 모두 다르지만, 각자가 하느님과 교우분들, 이웃들을 위해 애쓰고 계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도와 격려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자, 이 소식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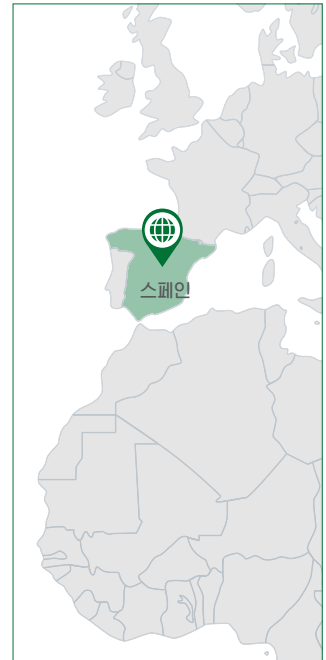
선교지 이야기

스페인 마드리드대교구

고가람 스테파노 신부

안녕하세요. 마드리드대교구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고가람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한국은 가로수에 심어진 은행나무잎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변할 때 가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스페인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을이 무르익어 곧 겨울이 다다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내린 비는 별일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내릴 겁니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면적 505,963km² (세계 50위)

인구 4,675만 4,783명
(세계 30위)

종교 가톨릭 74% 이상

성인 301명

복자 2,115명

수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인 성 아고보(대)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관할 대교구 14개

구역 교구 55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군중교구 1개

다. 이 시기에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기온은 따뜻하지만 높은 습도를 자랑합니다. 글을 쓰는 지금 집에 있는 습도계를 보니 대략 50%를 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시기의 스페인 날씨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겨울 날씨가 좀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추위는 살이 에는 듯한 느낌이라면, 스페인의 추위는 한기가 뺏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내복을 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지만, 스페인에 겨울이 오면 내복을 꺼내 입습니다.

겨울이 왔음은 한 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 교회 안에 굵직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꼽자면, 8월 초 리스본에서 열린 제23차 세계청년대회가 있었고, 10월 로마에서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주제로 열린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대교구 안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아마 2014년 10월부터 마드리드 대교구를 이끄시던 카를로스 오소로 추기경님께서 2023년 6월 대교구장에서 물러나심과 동시에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이어서 호세 코보





카노 추기경님께서 마드리드대교구의 새로운 교구장으로서 취임하신 일일 겁니다.

새로운 교구장님께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전 교구장님과는 사뭇 다른 색깔의 마드리드대교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교구장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제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만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사제들이 새 교구장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교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만나러 나선다면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마 이전과 다른 마드리드대교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이 마드리드 교회 안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드리드대교구에는 지난 4월에 10명의 새로운 부제, 5월에는 11명의 새로운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부제 수품자 중 한 명이 저희 본당 소속이라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드리드대교구의 부제 서품식에 참석했습니다. 미사와 부제 서품식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제 서품식 미사 이후 축하하는 방식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도리어 인상 깊었습니다. 사제, 부제 서품식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많은 분이 본당에서부터 만들어온 현수막을 들고 기다렸다가, 수품자가 나타나면 환호하며 행가래를 쳐줍니다. 여기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새 부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한 해의 모든 일정이 1월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9월에 한 해 일정이 시작합니다. 스페인 현지 성당에서 햇수로 5년, 만으로는 4년을 지냈지만, 이 시기만 되면 늘 정신이 없습니다. 보

직의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성당 한 해 살림을 잘 하기 위해 수많은 대화가 오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을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할애하시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합니다. 또한, 향후 본당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의 계획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성당 사무실 근무표도 수정하여 새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9월과 10월은 새로운 시작과 적응으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인공동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을 뽑자면 먼저 저희 공동체 식구 전체가 다함께 아빌라로 소풍을 간 일입니다. 이 소풍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이제 좀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인상 깊었던 일은 공동체 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혹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 새롭게 이사를 와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미사 시간에 아이들의 울음 소리도 들리고, 떠드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덕분에 공동체가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기 천사들이 성당을 환하게 밝혀 주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 구성원의 영성생활을 위해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올해 5월부터 성서 40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벌써 3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읽을 때는 하루 하루가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꽤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읽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교회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대림제 1주일,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

찬미 예수님!

벌써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나 싶다가도, 찬찬히 돌아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올해 6년간의 칠레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지금은 과테말라에서 새로운 소임을 맡아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먼 나라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헛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 칠레에 있을 때에는 제가 있는 곳이 칠레인지 페루인지 많이들 헛갈려 하셨는데, 지금 있는 곳은 과테말라인지 과달루페인지 많이들 헛갈려 하십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먼 곳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²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천주교 47%
개신교 40%
기타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야고보(대)

관할 구역 대교구 2개, 교구 11개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몸으로 부딪쳐 보면서 배우는 것들은, 같은 스페인어권에 같은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되는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칠레와 과테말라가 서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거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화, 자연환경,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들도 애초부터 상당히 달랐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교회와 단체들의 모습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발전해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그 모든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점들 또한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당 안에서 사목을 하다 보면, 신앙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교회나 똑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와 교리교육, 성경 공부, 그리고 세상을 위한 봉사를 지향하는 교회의 커다란 흐름은, 그 발현되는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는 있지만, 본질 자체는 모두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다양성 안에 일치라는, 수없이 들어왔던 교회의 표어가 이런 의미임을 배워 나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은 이전에도 한국 신부님들이 여럿 계셨고, 또 너무나도 열심히 지내셨던 곳이었던 덕분에, 신자들 역시 한국 신부들에게 대한 깊은 이해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렵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서의 사목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 안에서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앞으로의 저의 과테말라의 여정에서 마주칠 많은 일이 하느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앵커리지-주노대교구

이준호 베드로 신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주노대교구에 선교사로 파견된 이준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선교사제 파견미사를 시작으로, 지금은 한국외방선교회를 통해 아일랜드 Maynooth(메이누스)에서 8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가톨릭국가로, 나라의 공휴일이 교회의 전례





력과 대부분 일치하는 곳입니다. 국교가 로마가톨릭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당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 더블린에서 1시간 남짓한 곳에 위치한 메이누스는 더블린교구 소속이며 아일랜드의 유일한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St. Patrick's Pontifical Univ.(세인트 패트릭 대신학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현재 성소자는 많이 줄어 전 학년 통틀어 단 18명의 학사님만이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국가로서의 전통과 역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대신학교 캠퍼스는 산책과 묵상으로 몸과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산책하며 어떤 날에는 잠시 잊고 있었던 해화동 못자리에서의 순수한 지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머무르는 곳은 SVD(Societas Verbi Divini, 신 언회)가 운영하는 기숙사로, 은퇴하신 아일랜드 선교사 신부님 열 분과 함께 매일 미사와 생활을 함께

하는 다정하고 소박한 공간입니다. 매일미사는 오전 7시 30분에 봉헌하며, 수업은 오전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오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대부분이시며 지난여름에는 서른 분 가까이 함께 지내고 생활했습니다. 출신 국가와 문화는 다를지라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목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공부뿐만 아닌 삶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3번 미사를 집전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미사를 봉헌하지만, 가끔 현지인들의 주일학교 미사가 그리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걸어서 5분 거리인 메이누스 본당 어린이 미사에 함

알래스카(미국)

주(州)도 주노

면적 1,717,856km²

인구 710,249명

종교 개신교 37%
가톨릭 16%
몰몬 5%
동방정교회 5%
유대교 0.5%
이슬람교 0.5%

성인 14명

복자 7명

수호 성인 무염시태

관할 (미국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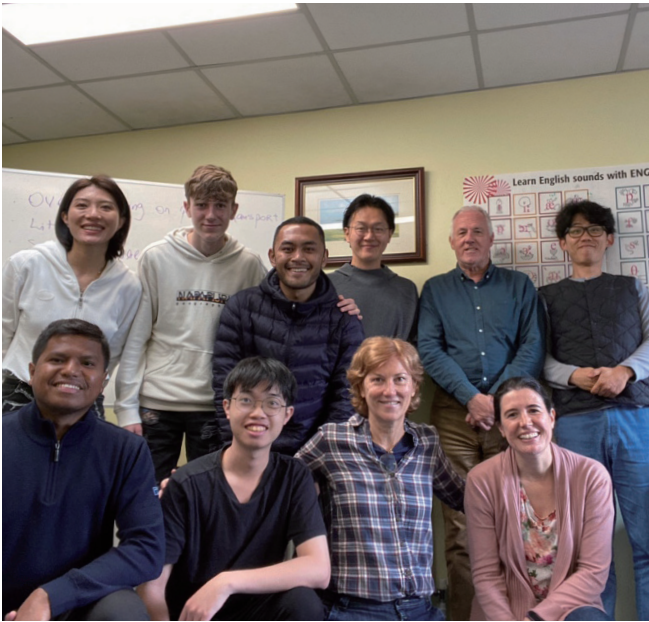
구역 동방가톨릭관구 1개
대교구 33개
교구 160개
군종교구 1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께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때마침 본당에서 첫영성체가 있었습니다. 멋지게 단장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은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지난 본당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주일에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 손을 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멋진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에 축복을 빌어 주기도 했습니다.

미사 후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현지 신부님들께 틀린 발음과 문장을 교정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달부터는 정규 수업 이후 1시간 씩 은퇴하신 신부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회화 연습하는 시간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전날 지구촌 뉴스를 보고 브리핑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제게는 선배 신부님의 경험과 지혜를 청청하는 값진 기회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좋은 기회에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니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신부님 관점에서 북아프리카는 아랍-아프리카이지 진짜 아프리카는 아니라고 하시며,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척박했던 역사 때문인지 아일랜드 음식의 주재료는 역시나 감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갖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먹듯이, 아일랜드에서는 시기별로 품종별로 아주 다양한 감자가 존재해 새로운 감자를 기다리며 그 맛을 음미합니다. 물론 아일랜드 감자가 맛있기는 하지만, 고국의 매운맛이 그리울 때면 기숙사 공유 주방에서 직접 한식을 요리해 먹으며 소소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K-Culture의 영향력을 이곳 아일랜드에서도 크게 느낍니다. 혹시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블린에만 가더라도 어렵지 않게 한인 식당을 찾을 수 있고 한인 슈퍼도 있기에 웬만한 식자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언제나 K-Pop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일랜드의 명물은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워낙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현지인들은 비가 내리더라도 거의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로 관광객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날씨는 마치 하느님께서 허

락하신 삶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비바람과 선물처럼 내리쬐는 햇살 사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만들어진 대자연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도 모두 위대한 작품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섬나라답게 멋진 자연을 자랑하는 아일랜드에는, 특히 해리포터를 비롯해 여러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Gallway(골웨이) 지방의 Cliffs of Moher(클리프 모허 절벽)을 비롯하여 성모님 발현지인 Knock(녹) 성지가 있어서, 해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하여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인파로 붐빕니다.

지금의 좌충우돌하는 어학연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알래스카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선교사의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와 무엇과 만나게 될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만날 모든 시간을 주님의 섭리 안에 기대는 믿음일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여러분 모두가 따스한 온기와 사랑의 온유함으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 2024년도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0개 국가 21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일본	김태근 베드로
	우석제 도미니코		김윤복 모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넬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경진 베드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알래스카)		김성천 스테파노
	이준호 베드로 (알래스카)		정해성 베드로
	박민서 베네딕토	독일	신정훈 미카엘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박형문 바오로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1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신청 QR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11월 납부일 기준)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민정 강서혜 강선경 강선홍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이순 강정애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현주 강혜란 고경식 고순례 고영임 고영주 고윤숙 고은실 고의영 고정원 고혜숙 공정삼 박상원 박정현 박희경
구가은 구경모 구모석 구민영 구민회 구승모 구연모 구자순 권경애 권성혁 권오경 권오영 권옥수 권익란 권효정 길혜자
김건우 김경란 김경희 김공례 김광자 김국희 김규엽 김규태 김금자 김기수 김기용 김길옥 김나은 김난옥 김남균 김다영
김덕수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옥 김명춘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재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욱 김민주 김병국 김봉조 김봉흠 김상욱 김석용 김선태 김선혜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승규 김승희 김시훈 김신순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영덕 김영미 김영석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희 김옥심 김옥제 김완식 김용기 김용혜 김용희 김우경
김우찬 김원선 김원임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자 김인복 김인수 김지원 김장욱 김재동 김점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점숙 김점애 김점오 김정용 김정호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지민 김지애 김진선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춘희 김태순 김태윤 김평화 김학덕 김한근 김 혁 김현숙
김형정 김현주 김현준 김혜숙 김효준 김후덕 김희선 김희정 김희주 나범수 나석연 나정예 남승관 남승민 남 정 남정희
남하현 노금품 노승경 노승주 노옥란 노혜영 땡미숙 문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묘 민지희 민흥기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남주 박다운 박명랑 박명숙 박미자 박병선 박봉자 박상우 박설진 박성규 박성분
박세진 박수진 박승보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영주 박옥희 박유나 박윤경 박은덕 박은진 박은호 박정남 박정숙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현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중 박태련 박태안 박현욱 박혜경 박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경서 백명옥 백선희 백승자 백영숙 백윤남 백은숙 백일순 변광국 변신호
사춘숙 서수용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지영 서효숙 석정미 석진혁 석훈희
성경희 성락숙 성원경 성윤석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송금선 송기덕 송미숙 송민식 송민우 송영남 송이중
송재일 송진아 송혜원 신경애 신미경 신상자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수경 신수점 신앙선 신유리 신윤숙 신재순 신재영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근자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오점
안종익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호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도경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우식 양정훈 엄인영 엄주영
엄지원 연연흠 연제현 연현철 오귀애 오미희 오세성 오영선 오옥남 오윤재 오인환 오정석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슬 왕규철 왕은순 우종철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자 유미숙 유 숙 유승연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한석 유한주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 배 윤선화 윤소영
윤재우 윤지숙 윤진숙 윤필용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갑석 이건희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금숙
이금주 이길자 이나은 이동근 이두식 이만수 이명혜 이민재 이방자 이병주 이보차 이복금 이복동 이복순 이상구 이상귀
이상영 이선민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성희 이숙노 이순금 이순명 이순이 이순자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연희 이영순
이영임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란 이옥희 이웅승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유진 이은태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준
이재희 이정우 이정민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임 이준협 이준화 이지옥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진희 이창경 이창엽 이채미 이철항 이춘자 이태숙 이태종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형자 이혜영 이 호 이홍재 이희나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흠 임동은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선혜 임수주 임순자 임소희 임옥연 임용숙
임윤자 임정렬 임주연 임태현 임현숙 임현준 임혜자 장명수 장명호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진희
장착한 장춘자 장효숙 전경복 전병주 전성실 전옥순 전용민 전은경 정경균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명화 정병희 정상은
정상민 정선경 정선화 정소영 정순이 정연호 정영금 정영선 정완삼 정용운 정윤희 정재현 정지혜 정진규 정찬훈 정태양
정평화 정홍경 정효남 정문채 정희자 제민경 조건웅 조경자 조나라 조남옥 조도연 조문경 조복래 조부귀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경희 주선미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환 차명호 차영미 채상경 채종서
채행찬 채희정 천유진 최강호 최경희 최길보 최명근 최문성 최보성 최선명 최성지 최성진 최성태 최세화 최소중 최숙희
최승한 최영옥 최영호 최옥경 최욱란 최 용 최운근 최원우 최원정 최윤보 최은영 최임준 최재은 최정윤 최정은 최정자
최제원 최준일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환희 최희중 추명진 탁정환 태연순 태철민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윤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예 한은비 한정우 한창준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미래 허영진 현문섭
현성순 현정애 현혜서 홍관실 홍금선 홍석준 홍성숙 홍순옥 홍승예 홍영덕 홍재모 홍정민 홍정자 홍정희 홍주희 홍철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영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지선 황춘익 김미카엘 박미리아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킹스쿨학원
이행자임정옥 김훈재치과의원 Fr.구본석 Fr.김연범 Fr.박규흠 Fr.박민재 Fr.박우준 Fr.우요한 Fr.이계호 Fr.이병철 Fr.임상무
Fr.황중호 익 명



후원회 신년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4년 1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고스트홀)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국장 신부
유동철 리노 차장 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발급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2-727-2409>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24년 1월 중순 이후)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 발급되오니 따로 연락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1월 16일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5월 14일		
	9월 10일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3월 12일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
	7월 9일		
	11월 12일		